MULTI ASSET STRATEGY

2026. 2. 20.

글로벌 투자전략팀

유승민 Chief strategist
strategist.you@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미-이란 갈등 상황 점검

지난해보다 불확실성 다소 상승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10~15일의 시한을 주며 요구 사항 수용을 요구. 불응할 경우 군사 공격을 경고
- 금융시장에서 주의할 변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지 여부
-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당시에 비해 상황은 나쁘나, 여전히 협상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3월 초를 시한으로 이란에 3가지를 요구. 1) 이란이 핵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2)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제한을 수용하며, 3) 역내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등.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하며, 최근 인근에 미 해군 항공모함 2개 전단을 배치. 이에 대해 이란도 반발해 러시아와 합동 해군훈련을 실시하는 등 갈등이 고조.

지난해 6월 12일 이스라엘은 이란 내 핵 시설을 파괴하고 군부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군사 행동을 감행. 이후(21~22일) 미국도 B-2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란의 주요 핵 관련 목표를 공습(이 공격은 이란의 선제적 대응으로 핵 능력에 치명타를 입히지는 못했다는 평가). 그럼에도 당시 이란은 소극적으로 대응. 장기간 경제 제재로 인한 군사 역량 약화와 내부 정정 불안 등이 배경.

무엇보다 지난해 군사적 갈등은 양측 모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 걸프 지역 석유 수출에 차질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갈등이 진정됨.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압박까지 더해져 정권붕괴 우려가 커지면 현 이란 지도부의 돌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로 미국에 대항하는 상황. 이 경우 미국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다시 걸프 지역 석유 시설을 보복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우려.

걸프 지역 석유 수출국들의 동 해협 의존도는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가 100%이고 다른 국가들도 절대적(이라크 97%, 사우디아라비아 89%, UAE 66% : Vortexa 추정). 또한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경로(송유관 이용 등)도 제한적인 상황.

다만 아직은 협상이 양측에 우선 선택지로 보임. 올 초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보듯 트럼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외교적 전술을 추구하고 있음.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높음. 이란 역시도 미국의 압박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경우 현 정권의 신속한 종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

당사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을 30% 이하로 예상하나, 향후 1~2주간 협상 추이를 주목.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